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라틴아메리카 좌파 진영의 롤라화

파블로 스테파니

90년대 후반 이래 라틴아메리카는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소위 포스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일련의 변화를 겪어왔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이를 “시대의 변화”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두 부류의 좌파 진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만큼 다양한 변화를 가리킨다.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가¹⁾ 이원론적 비유를 통해 채식성 좌파(칠레, 브라질, 우루과이)와 육식성 좌파(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로 나누는 이러한 구분은 아주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거친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좌파 진영 간의 합치점을 포착해내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또 급진 좌파적 시각에서 혁명정부가 개혁정부보다 좀더 낫다고 보면서 아주 세세한 분류를 하는 사람들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지에 실린 장문의 사설에서 ‘신중함’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에보 모랄레스의 거시경제적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점,²⁾ 아르헨티나의 소수권력집단 일간지 『나시온』이 기사에 ‘볼리비아, 주목을 끌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³⁾ 그리고 CNN 방송 프로

1) 노벨상수상자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아들-옴긴이.

2) William Neuman, “Turnabout in Bolivia as Economy Rises From Instability”, New York Times, 16/2/2014.

3) Rubén Guillemi, “Bolivia da la nota: ya es uno de los países más pujantes de la región”, La Nación, 13/4/2014

인 디네로(Dinero)에서 “볼리비아는 2005년 이래 최고”라고 말하면서 볼리비아를 크게 칭찬한 점은⁴⁾ 열광적인 반포폴리즘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과정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변화과정에서는 근원적이고 심지어 환골탈퇴 수준의 변화와 ‘달러 민족주의’(nacionalismo dolarizado)의⁵⁾ 조합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 좌파 진영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분석에서 제쳐둘 수 없는 사실은 변화를 겪은 그러한 정부들이야말로 포스트신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워싱턴 컨센서스⁶⁾의 “기나긴 밤” 효과를 원래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구조 개혁과 세계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 자본주의(이탈리아 출신 라파엘레 시모네는 이를 “친절한 괴물”이라고⁷⁾ 불렀다)에 의해 크게 변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경우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들은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자신들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에보 모랄레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외환보유고를 달성했는데, 이는 『뉴욕타임즈』지와 IMF를 깜짝

4) http://www.economiayfinanzas.gob.bo/index.php?opcion=com_media&ver=video&id_item=100&categoria=31&idcm=761

5)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를 공식 화폐로 인정한 것을 가리킨다-옴긴이.

6) 워싱턴 컨센서스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을 말한다.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탈규제화를 비롯해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1989년 자신의 남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했으며 1990년대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미국내 정치경제 학자들, 행정부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정립됐다. 이 용어는 반세계화주의자들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거대한 음모 내지는 술수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옴긴이.

7) José Fernández Vega, “El monstruo amable Nuevas visiones sobre la derecha y la izquierda”, *Nueva Sociedad*, No. 244, marzo-abril de 2013.

놀라게 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⁸⁾ 이로써 볼리비아·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의 일부분은 재분배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낭비적이고 또 탈제도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닌 경제 운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사회주의의 종말

10여 년 동안의 좌클릭(베네수엘라 15년,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8년) 이후 영광의 시대는 뒤안길로 나앉게 되었다.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경우처럼 반자유주의 통합의 고원화가⁹⁾ 가시화 되고,¹⁰⁾ 좌파진영은 변화의 기치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였다. 안전한 포퓰리즘, 문화적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면모” 이 세 가지를 조합할 능력을 갖춘 신우파 진영은 라틴아메리카지역 전체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포스트자유주의 진영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전체 차원에서는 지역을 위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대안으로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ífico)의 결성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세르히오 마사, 마우리시오 마크리, 베네수엘라의 엔리케 카프릴레스, 에콰도르의 마우리시오 로다스(수도 키토 시장 선거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에게 승리했다)가 포스트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좌파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브라질의 질마 후세피,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는 현재 중임 가능성이 높고, 칠레의 미첼레 바첼레트는 지난 12월 큰 표 차이로 우파 후보에게 이겼다). 그러나 한때

8) 외환보유액이 이미 국내총생산의 50%를 초과하고 있다.

9)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의 지속-움직임.

10) Ver: Nicolás Comini y Alejandro Frenkel: “Una Unasur de baja intensidad. Modelos en pugna y desaceleración del proceso”, Nueva Sociedad, No. 250, marzo-abril, 2014.



태평양 동맹 결성 시기의 대통령들. 좌측부터 페냐 니에토(멕시코), 후안 마누엘 산토스(콜롬비아), 세바스티안 피네라(칠레), 오안타 우말라(페루) (출처: <http://www.elciudadano.cl>)

나마 또 다른 유형의 21세기 사회주의로 수평적 이동했다고 여겨진 것은 지역적 합의에 결부되어 있었다기보다 우고 차베스의 자발적 과잉행동주의(superactivismo voluntarista)에 더 결부되어 있었고,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개발주의적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브라질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사실상 브라질은 “지역의 기관차”로서 역할과 글로벌 게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울 정도로 준강대국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이러한 위상은 쿠바에 대한 영향력 증가에서 드러나는데, 쿠바에서는 톨라의 경제적·정치적 입김이 주목할 정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피델 카스트로가 정치적·정서적으로 차베스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면 쿠바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냉철한 군부와 라울 카스트로를 추종하는 테크노크라트는 오히려 브라질에 더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물론 쿠바는 당분간 계속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의존을 해야겠지만 말이다.¹¹⁾ 예를 들

어 『엘 파이스』지는 좀 더 나은 품질의 콩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쿠바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롤라가 쿠바 방문 길에 “콩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마토 그로수 주의 전 주지사 블라이루 마기를 대동했다고 보도하였다.¹²⁾

물론 롤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에게도 국가를 통치하고, 연정을 펼치고, 기본생활보장 프로그램(programa mínimo)을 만들고, 갈등 해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토론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따뜻한 충고를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¹³⁾

신개발주의적 합의

모든 부분에서, 집권 좌파진영은 개발주의적 합의의 테두리 내에서 채굴주의(extractivismo)의¹⁴⁾ 확장과 사회 정책 전개를 조합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에콰도로 볼리비아에서는 일련의 환경 갈등이 야기되었고, 또한 경제의 재원자재화(reprimariación),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 보호지역 내에서의 인프라 및 개발(볼리비아의 TIPNIS와¹⁵⁾ 에콰도르의 야수니국립공원 경우), 지역 통합에 있어 채굴주의 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쟁이 야기되었다.¹⁶⁾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

11) “Necesitamos reducir el papel del Estado en la sociedad, y no soy del Tea Party por decir eso”, señaló hace poco un ex diplomático, y aun consejero del gobierno.

12) Juan Arias, “El sueño secreto de Lula con Cuba”, El País, 6/3/2014.

13) El Universal, Caracas, 8/4/2014.

14) 천연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삼림 자원의 탐사 및 채굴(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minería pesquería, forestal). 천연자원을 전용(轉用)하는 산업 모델로서의 채굴주의는 남미에서 오래된 현상이지만 최근에 국경을 무시하고 자연파괴와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일이 증가하였다-옮긴이.

15) TIPNIS(El Territorio Indígena y Parque Nacional Isiboro-Secure)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영역의 자연보호 정책을 일컫는다-옮긴이.

16) Eduardo Gudynas, “Izquierda y progresismo: Dos actitudes ante el mundo”,

과이의 경우는 전통적인 경작물을 대두로 대체하는 현상도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 쌀 수요 증가에 의해 촉발된 대두 위주의 경작이 수년 전부터 농업 생산과 농촌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기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강대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야차이 지식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매우 감격스러워 했는데,¹⁷⁾ 대한민국 지원으로 시작된 이 도시는 여러 기업과 외부 연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식 경제를 활성화할 모색한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와 부통령 알파로 가르시아 리네라도 볼리비아 정부가 3억 달러를 쏟아 부은 볼리비아 위성 ‘투팍 카타리’호 발사를 중국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매우 감격하였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국민들이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는 한국을 세 번이나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발주의적 기대에 맞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게를 지닌 비판적 담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는데, 이들 담론 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환경적 갈등을 지칭하고 또한 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했을 지도 모르는 기본 원자재에 관한 합의(Consenso de los Commodities)를 해체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¹⁸⁾ 또 다른 담론은 앞의 담론과 항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민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막 카우사이(Sumac Kawsay) 담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수막 카우사이 담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부터 볼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있고 또한 진보적 성향 정부의 사회적 토대를 생성해 내는 소비를 통한 통합에 맞서 사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

El Desacuerdo, La Paz, 17/4/2014.

17) Soraya Constante, “Ecuador inaugura su ‘Silicon Valley’”, El País, 6/4/2014.

18) Maristella Svampa, “Consenso de los Commodities” y lenguajes de valoración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 244, marzo-abril de 2013.



중남미 좌파진영의 대통령들 (출처: <http://www.adital.com.br>)

적인 의구심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진보인가 아니면 인기 영합적인가?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들은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즉, 종종 이들 정부가 진보적이기보다는 더 포퓰리즘적(그리고 더 반자유적)이라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키르체네르주의가¹⁹⁾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성적 다양성 권리에 있어서는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룬 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집권 좌파 정부들은 성적 다양성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다소 조심

19) 아르헨티나에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정치철학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는 페론주의 좌파진영에 속하며, 페론주의 청년당의 회원으로 정치경력을 시작했다. 또한 키르치네르의 측근도 페론주의 좌파에 속해있다. 키르치네르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 산아제한과 동성애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옮김이.

스런 입장을 취하였다. 한 예가 바로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다. 비록 2013년 12월 그는 LGBT(레지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단체와 처음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얼마 후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안하는 근본주의가 갑자기 생겨났다.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고 여자가 남자처럼 보이는 것은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획일화다. 그러니 그만들 하라!”라고²⁰⁾ 하면서 과도한 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가톨릭 교리를 충실히 따르는 코레아 대통령은 당내 일부지도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논의가 당내에서 계속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위협조로 발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부터 공영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을 제공하는 방안이 국가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²¹⁾ 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가 낙태에 관한 논쟁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지지한 장관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근 의회는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한 새로운 영유아법을 통과시켰다. 비록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낙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새로 제정된 법은 낙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였다. 성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탈식민청(Viceministerio de Descolonización) 산하에 담당 부서(Unidad de Despatriarcalización)가 신설되었지만 진전은 미미한 편이었다. 분명, 2000년대 들어와 여러 번에 걸쳐 개최된 동성애자 자부심 행진 행사에서 “볼리비아는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다양하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다양성은 인종적·문화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과정에 있는 가족법은 부부 및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어야 함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다.

20) Noticias eclesiales, 11/1/2014. <http://www.eclesiales.org/noticia.php?id=002097>

21) “Ministerio de Salud de Ecuador entregará la pastilla del día después de forma gratuita”, El Universo, Quito, 26/3/2013.

에콰도르의 경우는 신헌법 68조에서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혼인은 두 사람간의 안정적이고 일부일처식 결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²²⁾

아르헨티나의 동성 혼인법과 관청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도 신분증에 성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별 확인법은 권리 인정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으로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조치는 선거에서 정부의 표를 깎아 먹기보다는 오히려 선거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다. 우루과이와 브라질에서도 동성 혼인법은 인정되었는데, 다만 정치적 결정이 아닌 사법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단적 동원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LGBT의 집단적 동원력보다는 가톨릭과 개신교 단체의 동원력이 훨씬 더 강하다(빈민촌에서의 개신교 선교 확대 문제는 좌파진영이 여전히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LGBT 단체들은 종종 자기들끼리도 서로 분열되고 자기 참조 방식으로 행동하며 동성혼 쟁취를 위한 투쟁 수칙이 내부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정부 내 보수 성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²³⁾

현재와 미래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면도 있지만 아무튼 라틴아메리카는 여러 의미에서 변화를 겪었고 좌파 진영은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다. 베네수엘라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한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사람이 라틴아메리카에는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클린 라미레스가 주목한 것처럼 두 갈

22) "Doce parejas homosexuales legalizaron su unión de hecho en Ecuador", Sentido G, 2/7/2010.

23) Sobre las estrategias en la lucha de las organizaciones LGBT y las tensiones al interior de los movimientos, ver: Bruno Bimbi, Matrimonio igualitario, Planeta, Buenos Aires, 2010.

래의 좌파 진영은 최근 다소 롤라적인 성향을 띤 하나의 좌파 진영으로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²⁴⁾ 이런 식으로 성장 모델, 시장 규제 및 억압받는 계층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다. 포스트 신자유주의는 각국 정부가 시행한 구조개혁에 의거하여 보다 덜 반체제적인²⁵⁾ 방식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에는 없는 조세 개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산타 크루스 주의 부르주아 계층 간에 이뤄진 합의도 이러한 경향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롤라식 변화는 포스트자본주의적 경제 실험을 주변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린다.

신우파진영이 아젠다에 재사유화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끔씩은 훨씬 포용적인 방안을(진지성의 여부는 별개로 친다면) 놓고 진보 정부들과 경쟁하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무대와 어려움에 직면한 시대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국수적·포퓰리즘적 좌파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적다. 자신들 스스로를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목소리 대변자라고 여기는 정당들에게 있어 문제는 권력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과 후퇴를 반혁명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권력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권력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제도적 조치도 국민의 필요성 혹은 혁명의 필요성에 앞에서 작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혁명(에콰도르에서는 시민혁명,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비아 혁명, 볼리비아에서 민주적 문화적 혁명)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재선에 집착하게 만든다. 코레아 대통령 자신도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후 국가동맹당(AP) 수뇌부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결정을

24) Franklin Ramírez, "La confluencia post-neoliberal", mimeo, 2014.

25) 기존의 사회질서에 반하는-옮긴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였다. 가장 개혁적인 정부들의 경우에는 당내에서의 보다 큰 제도성과 비연속적 재선을 통해 권력 지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칠레의 바첼레트는 이미 다시 권력을 잡았고 우루과이의 타바레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브라질의 룰라는 지우마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예비용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후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도화를 옹호하는 좌파에게 있어서조차도 정치 엘리트를 선명하게 교체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과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브라질 노동당노선(petismo)보다는²⁶⁾ 룰라노선(lulismo)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오늘날 좌파진영은 변화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생각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에 있다. 한층 더 젊은 세대들은 신자유주의적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세대들은 신자유주의적 시기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결부된 요구사항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길었던 신자유주의적 시기를 참조하는 것은 점점 비효율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브라질이 바로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노동당(PT)이 예전보다 더 국수화되고 또 더 퇴색되었으며 경제발전 속도도 둔화된 상황에서 신세대들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주요 요직, 교육, 환경, 교통, 월드컵 개최 비용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서는 백인 권력층에 의해 배제되었던 예전의 원주민들과는 다른 성격의 원주민들이 머지않아 소비에 편입된 새로운 계층이 될 것이다. 낙태와 마리화나의 합법화 같은 과감한 사회적 조치와 더불어 다소 기존의 그리고 외자유치 경제정책을 조합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경우는 좀 더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야당이 신자유주의적 구체제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던 초창기와 달리 오늘날 좌파 진영의 운명은 자신들의 창조성, 새로

26) 브라질 중도좌파 정당인 노동당의 정치적 노선-옮긴이.

운 정치 형태에 대한 개방적 태도, 안정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좌파 진영이 담아놓은 포스트자유주의적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한층 더 새로운 모습을 띠고, 더 새롭게 단장한 담론을 갖추고 그리고 한층 더 젊고 더 잘 훈련 받은 포스트모던적 우파 진영에게 좌파 진영이 변화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는 능력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심상완 옮김]

파블로 스테파니 - 누에바 소시에다드 편집장
심상완 -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